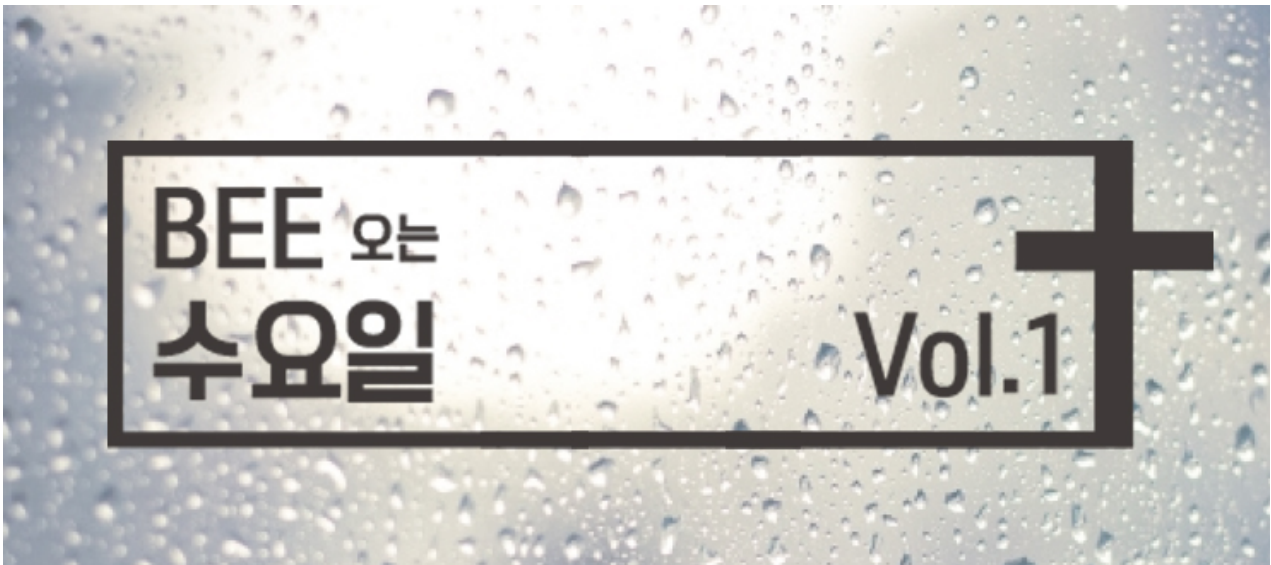




스물다섯번째 이야기

말씀의 능력

새로운 사역

5년동안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다 올해 서빙고로 왔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 정착된 자리가 주는 안정감과 익숙함이 나를 다소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었고 헌신과 열정의 불이 조금씩 꺼지고 있었다. 그런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잘 아셔서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셨다. 이제 약간의 무기력함과 새로운 자리에 대한 불편함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기쁨과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다. 내게는 가르침이 은사인 듯 하다. 가르치고 있으면 내가 나인 줄 모를 만큼 열정적이 되고, 준비할 때 전혀 떠오르지 않았던 새로운 통찰까지 술술 흘러나온다. 두렵고 떨림으로 강단의 자리에 섰다가 그날 가르쳤던 생명의 말씀에 스스로가 은혜를 받아 영적인 담대함으로 강의를 늘 마무리하곤 한다. 그런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인 OBC와 성령수련회를 맡겨주셨다. 성령수련회는 강의 보다는 은사집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1박2일동안 '성령론'을 주제로 하여 5개의 강의를 진행하고 중간중간 소그룹 나눔과 기도사역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주된 프로그램은 강의라 할 수 있다. 다섯 번의 강의를 1박2일동안 쏟아내고 나면 몸이 녹초가 될 수 있지만, 이상하리만큼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을 받는다. 그것은 성령님을 소개하고 그 능력을 증거할 때 주시는 성령 충만함일 뿐만 아니라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시는 기쁨이 아닐까 싶다.

로마서, 로마서, 로마서

(로마서)를 1학기에 진행했고, 이번 학기에도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로마서를 강의하게 됐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의 진정한 능력과 은혜를 더욱 깊게 보게 하기 위한 인도하심이라 생각한다. OBC(로마서)를 개강하는 주에 1년에 두 차례 돌아오는 새벽2부 예배 설교를 하게 됐고 전해야 할 본문은 로마서 7,8장이었다. 그리고 로마서가 핵심말씀인 성령수련회까지 한 주에 몰려 있었다. 매우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한 주 동안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바다가운데 빠져 살았다. 그러면서 로마서의 가치를 더욱 새롭게 깨달았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로마서를 ‘성경의 꽃’이라고 했다. 성경 속에 로마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물론 그 전에도 복음을 명확하고 철저하게 정리한 책이자 주옥 같은 말씀구절들이 많으며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담긴 말씀임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렇게 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새벽예배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7장의 바울의 외침이 새롭게 들려왔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적이고 성령충만했던 바울 역시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충돌하는 내면의 영적 전투에서 자주 참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는 죄인 됨의 인식의 처절한 절규가 내게도 메아리쳐 들려왔다. 그리고 그는 외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절망의문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만이,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만이 나를 건져내실 분이라는 확정의문문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일상 속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더욱 깨닫게 되었다.

성령, 그리고 로마서

또한 요즘에 나는 성령님께 꽃혀 있다. 성령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영적인 세계의 베일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신자의 삶 가운데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과 그분의 나타나심이 필요한지를 알게 됐다. 그 삶이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열매로 이어지고 있고, 인격이신 성령님을 하루하루 경험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런 ‘성령’이라는 내 안의 영적 코드와 성경에서 성령장으로 유명한 ‘로마서 8장’이 만나니까 새벽예배 때 은혜가 특별히 풍성했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 사람들을 찌르고 들어감이 느껴졌고, 곳곳에서 영적인 반응들도 일어났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그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을 갈망하는 이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했고, 함께 중보기도를 했다. 그것은 나의 말의 지혜가 아니었다. 탁월한 해석과 유창한 표현도 아니었다. 그저 ‘성령충만’과 ‘로마서8장’이 만났을 때의 시너지였다. 성령님과 로마서 말씀이 만나 강력한 검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혼과 영을 찌르고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됨을 보면서 성경과 신앙의 대가들이 왜 로마서8장을 ‘성경의 꽃 중의 꽃’이라고 하는지를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 때의 은혜와 감동이 차고 흘러 OBC(로마서) 강의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로마서에 대한 깊은 영적 베이스를 깔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죄의 심각성’, ‘속죄와 대속의 은혜’, ‘성화’ 등의 영적 개념에 대해 새로운 단계로 접근하게 됐고, 로마서 곳곳의 깊은 뜻을 더욱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매주 로마서에 담겨진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다.

로마서1:16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말씀이 있다.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뒤나미스’이며 영어 ‘다이나마이트(폭탄)’의 어원이다. 즉 복음은 능력인데 그 파괴력은 주변에 적당한 변화를 주는 선선한 바람 정도가 아니라 주변 반경 10m 이상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엄청난 힘인 것이다. 우리의 복음도 그러하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은 나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지인, 직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견고한 영적인 진들을 순식간에 초토화 시키며 존재의 근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것이다. 아니 온 민족과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공할만한 능력인 것이다. 로마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 안에 담겨진 그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 단지 복음의 입문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교리서 수준이 아니라, ‘이신칭의’의 주제가 잘 드러난 바울의 신학의 총체 정도를 넘어서 복음이 복음 됨을 알려주고 영적인 능력을 깨닫고 경험케 하는 능력의 책인 것이다.

능력이 되는 복음

어떤 목사님이 OBC(로마서) 강의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 로마서는 강의하면 할수록 새롭다고... 그리고 계속하다 보면 로마서를 통해 회심한 특별한 교회사적 발자취를 남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자유주의 신학과 부도덕함의 시대 속에서 살아있는 복음과 정의를 주장했던 ‘본 회퍼’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떠오른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도 두근거린다. 다음주 강의를 준비할 때, 또 진행할 때 또 어떤 통찰과 은혜를 주실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성도들과 공유하면서 그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전달될 지가 기대가 된다. 로마서 강의를 자주하고 싶다. 로마서 전문이 되고 싶은 마음도 든다.

그러나 이것이 편식이 되면 안될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어떤 성경이든 보면 볼수록, 파면 팔수록 하나님의 깊은 뜻과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또한 OBC 한 과목 한 과목을 준비하면서 나와 인간과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고 그에 따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진정한 복음이 능력 되는 삶을 살고 그것을 전하는 부름 받은 자로서의 길을 걷고 싶다. 우리 모두가 로마서를 통해, 모든 성경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지속적인 삶을 통해 복음이 능력 됨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는다.

글: 박성은/ 편집: 최지영



박성은 목사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

서빙고 신용산공동체 담당,

서빙고OBC/성령수련회/시니어 아카데미 담당

BEE 소식

- 11월 26일(토) 2차 정기총회가 기도 모임 후에 열립니다.
- 12월 12일 두란노홀에서 BBK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올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